

귀촌일기- 장담그기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
센터장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많은 눈이 내려 일부라도 해갈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번 추위가 지나면 발농사를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눈이 녹아 땅이 축축해 시기에 맞춰 파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농촌에서는 시기적으로 농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장 담그는 일이다. 보통 음력 보름 전후 일주일 사이에 장을 담근다. 지난해에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써 온돌방에 10일 정도 띄우고 매일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건조를 시키고 있어 고초균이 풍부하게 퍼지고 메주가 잘 익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장 담그는 날은 혼자서 하기에 바빠 폼이로 동네 이웃의 도움을 주고받는다. 겨우내 말린 메주는 먼지를 털어내고 물에 담가 표면을 솔로 깨끗하게 문질러 씻은 후 채반이나 대바구니에 건져서 물기를 빼고 햇볕에 1시간 정도 말린 후 장을 담근다.

맛있는 장과 재래된장을 담으려면 소금물과 메주의 비율을 적당히 맞춰야 한다. 메주와 소금과 물의 비율은 1대 1대 3이 적당하다. 5년 이상 보관해 간수를 뺀 소금이 좋으며 메주콩과 같은 분량이 필요하고 시기를 놓쳐 늦게 담글 경우엔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금을 10% 정도 더 넣는 것이 좋다. 메주를 담글 때 필자는 염도계를 사용하는데 22도로 맞추어 담는다. 염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달

걍을 사용하는데 오백원 동전 크기 정도 뜰 때 염도가 적당하다. 염도가 강하면 더 많이 뜨고 싱거우면 가라앉는다.

장 담그는 용기는 메주양에 맞추고 소금물은 장독이 가득 찰 정도로 부어줘야 잡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 장을 담글 때는 장독에 소금물이 가득 차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메주가 불어나고 물은 증발하기 때문에 장을 담그고 남은 소금물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졸어드는 양만큼 수시로 채워 주는 것이 좋다. 숯과 대추, 고추를 띄워주고 수면 위로 뜨지 않도록 대나무로 메주를 눌러준다. 솥은 흡수성이 강해 잡내를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고 통고추는 살균에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대추와 함께 된장에 붉은색이 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맑은 날 뚜껑을 열어 햇볕에 노출시키면서 2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할머니·어머니들이 만든 재래간장과 된장은 모든 음식의 재료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재래간장과 된장이 건강발효식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필자도 10년 이상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장 담그기를 하면서 자연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과 하나 둘 쌓인 노하우를 주변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신년이 시작되자마자 유난히도 춥고 많은 눈이 내렸다. 남도의 들녘에 올해 처럼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새롭다. 그동안 매년 겨울이 따뜻해서 추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이번 설날은 유난히 추위를 많이 느꼈다.

그래도 2월이 시작되면 농부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늦가을에 과일 나무마다 짙어야 하는 퇴비가 빠진 곳을 꼼꼼하게 챙겨 추위가 가기 전에 시비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 작년 가을에 전정이 빠진 곳도 봄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귀촌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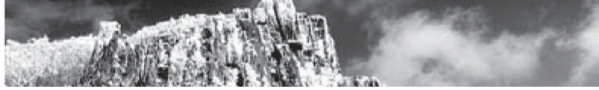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남도는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이 많고 평균 강수량에 훨씬 못 미쳐 가뭄이 심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식수가 고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비라도 충분히



사진으로 보는 세상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으로 김정은(앞줄 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이 부인 리설주(왼쪽), 딸 주애와 함께 7일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해 장성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AP/뉴스

서석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국을 찾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란 문구가 적힌 패를 선물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으로,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1884-1972)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 따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트루먼의 명언으로 유명한 'The Buck Stops Here'라는 글귀를 인용한 게 선물의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방송에서 트루먼의 탁상용 패를 얘기하며 "많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상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할 때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기대와 비판과 비난도 한 몸에 받는다. 열심히 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고리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된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1945년 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으로 연임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해 대통령이 됐다. 트루먼은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된 탓인지 재임 기간엔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서 냉전기

로 이어지는 급격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전후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인기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고, 한국전쟁에 미군을 파병하는 등 중대사를 직접 결정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떠안았다.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이 현직인 바이든을 포함해 46명에 달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크게 주목받지 못한 트루먼을 인용하며 '무한책임'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대통령 말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참사 100일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사과와 후속 조치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박성원 편집국장

社說

이상민 탄핵안 가결, 무책임 행정부 심판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로 판단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의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만큼 이같은 결과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헌정사가 새로 쓰여진 이유는 이 장관을 필두로 여권이 자초했다. 이는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전 본회의 안건 설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논리와 주장에 납득할만한 국민이 있겠는가.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온갖 일도당도왔던 변명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유족의 가슴을 멎들게 한 이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걸맞은 행동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거취 표명을 서둘러 더 이상 개인 뿐만 아니라 정치사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갯벌 복원 '역간척' 늦었지만 환영한다

가치 떨어진 간척지 복원을

식량 확보를 위해 매웠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간척이 생태계를 교란시켜 왔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인 고민없이 근시안적으로 이뤄졌던 지금의 갯벌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1960년대부터 매립했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최소 17조 8121억 원에 달하고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갯벌의 효용을 감안할 때 전남도 차원에서 갯벌의 식생과 복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신안 갯벌과 보성·순천 갯벌을 포함한 모두 4곳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는 것도 이이다.

한때 식량 확보를 명분으로 갯벌을 매워 농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다. 보존보다는 개발논리에 따라 수많은 갯벌도 사라졌다. 영광 육산방조제부터 영산강을 거쳐 해남 고천암, 강진 도암만, 완도 약산, 광양만까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던 전남의 리아스식 해안도 대거 사라졌다. 전국 갯벌의 절반 가까이 분포된 전남지역 갯벌 면적 또한 지난 1987년 1179km²에서 2018년 1053km²로 30여 년 사이에 20% 가량 감소했다.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바다 사막화' 등 부작용도 확산되고 있다.

갯벌은 해양자원의 보고이면서 환경오염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 중요하다. 어민들에게 '소중한 생명줄'이면서 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무한하다. 그렇다고 현재 만들어진 방파제를 모두 파헤칠 수는 없는 일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성도 떨어진 다. 정부와 전남도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효용가치가 떨어진 간척지부터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역간척'에 나서야 한다. 갯벌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